

#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에 관한 융합 관계 연구

최정희

광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Convergence relationship stud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eong-Hee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yang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의 융합 관계를 조사하고자 전남지역 3개 대학 치위생과 3학년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정체감은 임상실습 교육환경( $r=-0.352$ ,  $p<0.01$ ), 임상실습 업무부담( $r=-0.185$ ,  $p<0.05$ ), 환자와의 갈등( $r=-0.181$ ,  $p<0.05$ )과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은 임상실습 교육환경( $\beta=-0.261$ ), 적성 고려( $\beta=0.238$ ), 타인의 권유( $\beta=-0.186$ ), 임상실습 불만족( $\beta=-0.176$ )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의 관계를 파악하여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임상실습 스트레스, 융합, 치위생과 학생, 직업정체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171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3 university in Jeollanam-do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Professional ident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r=-0.352$ ,  $p<0.01$ ), clinical practice work burden( $r=-0.185$ ,  $p<0.05$ ) and conflicts with patients( $r=-0.181$ ,  $p<0.05$ ). The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identity were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beta=-0.261$ ), aptitude( $\beta=0.238$ ), advice from others( $\beta=-0.186$ ) and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beta=-0.176$ ).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3.7% of professional ident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for the smooth labor supply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stress, Convergence, Dental hygiene students, Professional identity

### 1. 서론

최근 고령시대로 진입하면서 구강관리욕구 및 수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치과의료분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1].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구강보건전문인력

인 치과위생사의 현장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임상실습 교육은 필수적이다.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치과 임상에서 실제로 수행해 보는 과정으로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2]. 그러나

\*Corresponding Author : Jeong-Hee Choi (spss1403@nate.com)

Received October 25,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November 22,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9

학교에서의 높은 이상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임상실습에 임한 학생들은 낮은 환경과 임상실습 담당자와의 갈등, 과도한 과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한계점, 대인관계, 환자와의 갈등 등으로 정서적인 혼란을 겪고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5].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로서 장기간 지속 되면 신체적 질환과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게 되고[6],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7].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실습경험으로 인하여 자신감 결여, 학습능력 저하를 초래한다[8].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이 전공 만족도를 낮추고 미래의 전문 직업인으로 긍지를 반감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9].

직업정체감이란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나 흥미, 능력에 대한 안정적인 청사진을 의미하며[10], 올바른 직업정체감 확립은 대학 생활 적응도를 높여 직업적응에 도움을 주고, 반대로 뚜렷하지 못한 직업정체감은 직업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1]. 학과 특성상 치위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미 직업적 선택을 하고 들어온 상태인데, 뚜렷한 직업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취업을 하게 되면 직업만족도가 떨어져 이직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12].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 관련 선행연구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 요인[13],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3],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 자아개념간의 관련성[14],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련성[1],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이 직업정체감에 미치는 영향[15] 등이 대부분이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과의 융합 관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편의추출방식으로 전남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 치위

생과 3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어도 4주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8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7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2 연구방법

#### 2.2.1 일반적 특성

종교, 임상실습 기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기관 수, 임상실습 지도자, 치위생과 선택동기를 포함한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2.2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 등[16]이 개발하고 김 등[17]이 연구에 이용하였던 20문항을 치위생과 학생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으로 임상실습 교육환경 5문항, 임상실습 담당자와의 갈등 5문항, 임상실습 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3문항, 환자와의 갈등 3문항 등 총 20문항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부정적인 면만을 묘사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0.913이었다.

#### 2.2.3 직업정체감

Holland 등[10]이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 척도 중 권 등[18]이 연구에 이용하였던 14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0.907이었다.

### 2.3 통계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직업정체감은 기술통계를 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정체감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Scheffe multiple comparison으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직업정체

감에 영향을 주는 융합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1)

Variables	N	%
Religion		
Yes	49	28.7
No	122	71.3
Period with clinical practice		
Less than 4 weeks	26	15.2
5-8 weeks	55	32.2
9-12 weeks	20	11.7
More than 13 weeks	70	40.9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78	45.6
Moderate	72	42.1
Unsatisfied	21	12.3
Number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1	23	13.5
2	62	36.3
More than 3	86	50.2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Dentist	9	5.3
Chief dental hygienist	90	52.6
Dental hygienist	72	42.1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For aptitude	16	9.4
For employment	111	64.9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7	4.1
Advice from others	34	19.8
Etc	3	1.8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종교가 ‘없다’인 학생이 71.3%로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기간에서는 ‘13주 이상’이 40.9%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45.6% 이었고 ‘보통’이 42.1%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기관 수는 3곳 이상이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담당자는 책임치과위생사가 52.6%, 일반치과위생사가 42.1% 순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 고려’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 3.2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79점 이었고 Cronbach’s Alpha는 0.913 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임상실습 업무부담’ 3.02점, ‘임상실습 담당자와의 갈등’ 2.93점, ‘환자와의 갈등’ 2.20점, ‘대인관계 갈등’ 2.17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정체감은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30점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Alpha는 0.907이었다. Table 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하여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치위생과 선택동기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01)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학생이 ‘취업보장’이나 ‘타인의 권유’로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직업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 임상실습 기간, 임상실습 기관수, 임상실습 지도자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tatistic

(N=171)

Variables	Subcategory	Cronbach's Alpha	M±SD	Range
Clinical practice stress		0.913	2.79±0.62	1~5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0.784	3.20±0.72	
	Conflicts with clinical practice practitioner	0.877	2.93±0.92	
	Clinical practice work burden	0.752	3.02±0.76	
	Conflicts with human relationship	0.857	2.17±0.86	
	Conflicts with patients	0.714	2.20±0.72	
Professional identity		0.907	2.30±0.49	1~4

Table 3.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1)

Variables	M±SD	t or F	p-value
Religion			
Yes	2.33±0.41	0.567	0.572
No	2.28±0.52		
Period with clinical practice			
Less than 4weeks	2.30±0.46	0.573	0.634
5-8weeks	2.23±0.54		
9-12weeks	2.32±0.42		
More than 13weeks	2.34±0.49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2.36±0.51 <sup>a</sup>	6.951	0.001 <sup>***</sup>
Moderate	2.33±0.40 <sup>a</sup>		
Unsatisfied	1.94±0.57 <sup>b</sup>		
Number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1	2.35±0.40	1.580	0.209
2	2.21±0.53		
More than 3	2.35±0.48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Dentist	2.30±0.59	0.096	0.908
Chief dental hygienist	2.31±0.44		
Dental hygienist	2.28±0.54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For aptitude	2.72±0.41 <sup>a</sup>	5.986	0.000 <sup>***</sup>
For employment	2.31±0.48 <sup>b</sup>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2.29±0.25 <sup>ab</sup>		
Advice from others	2.04±0.47 <sup>b</sup>		
Etc	2.43±0.31 <sup>ab</sup>		

<sup>\*</sup>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sup>a, b, c</sup> 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alpha=0.05$

3.4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직업정체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5개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교육환경( $r=-0.352$ ,  $p<0.01$ ), 임상실습 업무부담( $r=-0.185$ ,  $p<0.05$ ), 환자와의 갈등( $r=-0.181$ ,  $p<0.05$ )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3.5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정체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직업정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치위생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에서 직업정체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 업무부담, 환자와의 갈등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으로는 임상실습 교육환경( $\beta=-0.261$ ), 적성 고려( $\beta=0.238$ ), 타인의 권유( $\beta=-0.186$ ), 임상실습 불만족( $\beta=-0.176$ )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23.7%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Professional identity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Conflicts with clinical practice practitioner	Clinical practice work burden	Conflicts with human relationship	Conflicts with patients
Professional identity	1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0.352 <sup>**</sup>	1				
Conflicts with clinical practice practitioner	-0.076	0.545 <sup>**</sup>	1			
Clinical practice work burden	-0.185 <sup>*</sup>	0.534 <sup>**</sup>	0.677 <sup>**</sup>	1		
Conflicts with human relationship	-0.144	0.377 <sup>**</sup>	0.563 <sup>**</sup>	0.461 <sup>**</sup>	1	
Conflicts with patients	-0.181 <sup>*</sup>	0.226 <sup>**</sup>	0.390 <sup>**</sup>	0.397 <sup>**</sup>	0.599 <sup>**</sup>	1

<sup>\*</sup>p<0.05, <sup>\*\*</sup>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identity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E	$\beta$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0.178	0.049	-0.261	-3.625	0.000 <sup>***</sup>
For aptitude	0.401	0.116	0.238	3.470	0.001 <sup>**</sup>
Advice from others	-0.228	0.084	-0.186	-2.709	0.007 <sup>**</sup>
Un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0.263	0.108	-0.176	-2.429	0.016 <sup>*</sup>

$R^2=0.255$ , Adjusted  $R^2=0.237$ ,  $F=5.900$

<sup>\*</sup>p<0.05, <sup>\*\*</sup>p<0.01, <sup>\*\*\*</sup>p<0.001 by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 4. 고찰 및 결론

치과위생사란 직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구강보건전문인으로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강보건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치위생학 교육에 필수적인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3-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과의 융합 관계를 규명하여 직업정체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2.79/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민[13]은 3.38/5점, 최 등[3]은 3.61/5점으로 나타났고,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19]은 3.14/5점, 이[20]는 3.17/5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 추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련 환경요인을 더 첨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직업정체감 정도는 2.30/4점으로 간호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 등[11]의 2.26/4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21]의 연구에서는 2.77/4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를 낮추어 직업정체감이 낮아졌으리라 생각된다. 이[20]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이 다른 이유로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 등[1]의 연구에서도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한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21]의 연구와 작업치료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 등[22]의 연구에서도 성적 위주로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하여 본인 스스로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로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 결정을 함으로써 직업정체감을 향상시켜 졸업 후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이직을 줄여 양질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직업정체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 항목

간의 관련성에서는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 업무부담, 환자와의 갈등이 직업정체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요구 및 능력에 부합되는 임상실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낮아져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남 등[12]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임상실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임상실습 담당자들에게도 구체적인 실습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최 등[3]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의 교육과정 및 공동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고 임상실습 담당자들과의 교류 및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임상실습 시 매일매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실습일지 작성 및 사례발표 등의 임상실습 업무부담과 이 모든 것이 학점과 연계되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아져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과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23],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나 직업에 대한 개인 개념이 분명해진다고 하였다[24]. 학생들이 새로운 임상현장에 빨리 적응하여 흥미를 가지고 임상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제선정과 과제평가 기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임상실습 시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져 직업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다. 환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의사소통 및 환자관리 등의 직업기초 교육과정을 강화시켜 직업정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융합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임상실습 교육환경, 적성고려, 타인의 권유, 임상실습 불만족 순으로 직업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3.7%이었다.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직업정체감 형성에 가장 높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상실습기관과 대학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원인은 적성고려인데 학과선택 기준이 성적이나 타인의 권유가 아닌 학생 본인의 적성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입시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치위생과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로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나 직업에 대한 개인 개념이 분명해진다[24].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습 중인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직업정체감과 관련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비교가 불가능 한 점과 일부 지역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추후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첨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업정체감 향상을 위하여 학과선택 시 적성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과체험행사와 같은 간접 경험 프로그램 개발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임상실습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REFERENCES

- [1] K. H. Park & H. J. Choi. (2015).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5(2), 279-286. <https://dx.doi.org/10.13065/jksdh.2015.15.02.279>.
- [2] H. G. Ryu, H. J. Wi & D. E. Jeong.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and the stress lev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Clinical Health Sci*, 5(3), 907-914. <https://dx.doi.org/10.15205/kschs.2017.5.3907>.
- [3] S. S. Choi & Y. H. Lee. (2017). Stress and self-esteem related to clinical practices in selected dental hygiene departments. *J Korean Clinical Health Sci*, 5(3), 953-962. <https://dx.doi.org/10.15205/kschs.2017.5.3.953>.
- [4] K. H. Jeon, S. R. Lim & M. Kim.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nse of coher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departmental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6(5), 323-330. <https://dx.doi.org/10.17135/jdhs.2016.16.5.323>.
- [5] J. H. Yoo & J. H. Kim. (2016).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6(1), 62-69. <https://dx.doi.org/10.17135/jdhs.2016.16.1.62>.
- [6]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cited 2016 Aug 20]. <https://stdweb2.korean.go.kr>.
- [7] H. K. Lee. (2013).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i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J Korean Soc Dent Hyg*, 13(5), 827-833. <https://dx.doi.org/10.13065/jksdh.2013.13.05.827>.
- [8] B. J. Chang & K. H. Song. (2005).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1(1), 81-90.
- [9] S. J. Go, S. S. Kang, C. S. Kim, S. Y. Chio & J. Y. Kim. (2011). Study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students in department of radiologic science. *J Korean Soc Radio Sci*, 34, 287-296.
- [10] J. L. Holland, D. C. Daiger & P. G. Power.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11] K. N. Kwon & E. H. Choi. (2010).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lic Health Nurs*, 24(1), 19-28.
- [12] M. H. Nam & M. R. Lee. (2016).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2(4), 527-536.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527>.
- [13] H. H. Min. (2017). Influencing factors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7(1), 39-47. <https://dx.doi.org/10.13065/jksdh.2017.01.39>.
- [14] N. S. Heo & Y. H. Lee. (2018). Study about the relation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8(3), 399-410. <http://dx.doi.org/10.13065/jksdh.2018.18.3.399>.
- [15] J. H. Choi. (2018). Convergence factor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on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Convergence Soc*, 9(5), 99-104. <http://dx.doi.org/10.15207/jkcs.2018.9.5.99>.
- [16] D. L. Beck & R. Srivastava.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Nurs Educ*, 30, 127-133.
- [17]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Soc Nurs*

- Educ*, 11, 96-106.
- [18] Y. H. Kwon & C. N. Kim. (2002).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13(2), 216-229.
- [19] Y. J. Lim. (2017).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burnout. *J Lear-Cent Curri Instru*, 17(6), 461-474.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6.461>.
- [20] H. J. Lee. (2016).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 Korean Convergence Soc*, 7(4), 75-83.  
<http://dx.doi.org/10.15207/jkcs.2016.7.4.75>.
- [21]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 Korean Acad-Indus Soc*, 15(5), 2937-2945.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22] K. A. Chung & J. H. Cho. (2015).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 Korean Convergence Soc*, 6(5), 143-155.  
<http://dx.doi.org/10.15207/jkcs.2015.6.5.143>.
- [23] S. J. Go, S. S. Kang, C. S. Kim, S. Y. Choi & J. Y. Kim. (2011). Study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students in department of radiologic science. *J Korean Soc Radio Sci*, 34, 287-296.
- [24] H. S. Shim & H. N. Lee. (2014). Stress and cop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Soc Dent Hyg*, 14(2), 139-143.

최 정 희(Choi, Jeong Hee)

[정회원]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치위생학
- E-Mail : spss1403@nate.com